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Unemployment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고경필*, 심미영**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Gyeongpil Ko(gpko@gntech.ac.kr)*, Miyoung Sim(sim31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났지만,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의 향상을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의 완화, 가족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취업스트레스 | 자기효능감 | 가족지지 | 대학생활적응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mediated structural relation of college students' unemployment stress with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udy looked into how unemployment stress would directly affect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t was found that the unemployment stress would have immediate negative effects on the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addition, the study noticed that with both family support and self-efficacy applied as mediating factors, unemployment stress influences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indirectly and negatively. After the investigation on the immediate effects of family support in relation to the self-efficacy, the study indicated that family support has an immediate positive influence on the self-efficacy. In terms of self-efficacy, it appeared to affect adaptation to school life both positively and directly but, its indirect effects o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was not confirmed. The study failed to find any direct influence of the family suppor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but learned that the family support causes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self-efficacy, the mediating factor.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adaptation to school life improves as long as unemployment stress decreases, while the family support and the self-efficacy are enhanced.

■ keyword : | Unemployment Stress | Self-efficacy | Family Support | Adaptation to School Life |

* 이 논문은 2014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2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3월 31일

수정일자 : 2015년 03월 30일

교신처자 : 심미영, e-mail : sim312@hanmail.net

I. 서론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영위하며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면서 성인으로서의 틀을 형성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의 확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주어지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과 해결해야 할 수 많은 과업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일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대학생활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다른 생활스트레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2]. 이는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 복잡성의 증가, 다양한 직업의 출현 및 변화의 불확실성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낮고, 졸업 후 첫 취업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11개월이며, 동일 전공분야 취업률이 48%에 불과하다. 20-24세 청소년의 경우 62.8%가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9.3%로 나타났다[3][4]. 대학생들이 단순히 성공적인 취업에 도달하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의 기대교육 목적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차지했고, 가장 큰 고민도 진로 및 취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취업스트레스를 줄여 대학생활적응을 도와주고,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애착,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변인들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거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잠재적인 변인으로 밝혀졌다[5-12]. 이러한 잠재적 변인은 개인의 내적 요소인 학습자 변인과 학습자의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 내지 신념으로서[13], 개인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학습자 변인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상호

작용하며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14][15] 환경적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환경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환경적 자원으로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이며 실제적인 도움 및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16]. 따라서 대학생 시기가 학생에서 직업인으로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가족의 지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능동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는데 완충작용을 할 것[17]이라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생이 인식하는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가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족지지는 가족을 통해 얻게 되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로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18]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단선적인 영향이나 관계만을 분석하였고, 학습자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변인인 가족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를 매개로 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여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될 경우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대학생활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천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취업스트레스는 학업과 졸업 후의 취업관련 문제로

인하여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71],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로는 학업, 진로 및 취업, 인간관계, 건강, 대인관계 기술 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생들은 학업 및 취업영역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65-68]. 특히 대학생의 시기는 직업에 대한 준비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69]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에도 부정적 영향[70]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의 조직능력과 실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며,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합해야 하는 생성적 능력이다[72]. 개인의 다양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강화 받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형성되며, 개인의 미래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흥미형성에 영향을 미친다[19].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8][20-22]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대인관계 등과 같은 적응관련 변인들과 정적상관을[23][24]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25][26].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2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반적인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에서는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간에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개념으로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과 원조[16]를 의미한다. 가족관련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17][28][29]

스트레스를 겪을 때 생활사건의 위해한 효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고 보았다[30]. [31]의 연구에서는 가족단위가 청소년에게 정서와 보호를 주고받는 지지적인 관계망을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32]의 연구에서는 가족 지지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가족단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며, 대인탐색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과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 [33]의 연구에 의하면 양친 적어도 한쪽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것이 방어요인이 되어 불리한 여건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완충모델에서는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개인의 적응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에서 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효과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0][34][35]. 반면 사회적 지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어야만 스트레스를 완충시킨다는 사실도 보고되고 있으며[36],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이 요구하는 대처에 필요한 것들과 잘 부합될 때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잘 일어난다는 연구결과[37]도 있다. 또한 [73-7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에 가족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38]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제공자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가장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부모는 장기적인 진로나 가치관 형성과 같은 중요한 선택에서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3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 지적발달을 증진시키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관련되어 있으며[40], 부모의 지지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지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좋은 적응과 낮은 심리적 고통의 수준을 나타냈다[41]. 또한 부모의 지지는 더 건설적이고 덜 회피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고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기르

게 하고[40][4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43]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지지에 자기가치를 수반할수록 높은 대학생활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9][44] 가족의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교육과 직업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활적응은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및 가족지지에 도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알 수 있지만, 이들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가설적 관계에 근거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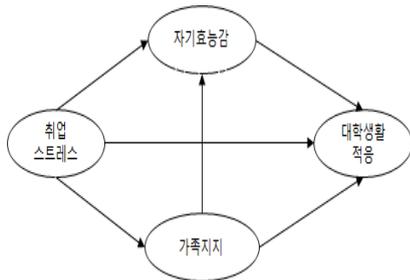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취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취업스트레스는 가족지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7.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8.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9.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도구

2.1 취업스트레스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CMI)을 토대로 [45]의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격스트레스 5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2 가족지지

[4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척도와 [47]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근거로 만들어진 [48]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참고로 [49]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내용 중 가족지지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지지에 관한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지지는 단일척도로 구조방정식에 사용하기 위해 3문항, 2문항, 3문항으로 무선배치하여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50]의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51]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문항은 자신감 8문항, 자

기조절효능감 11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로는 [52]에서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y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53]의 연구에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7문항 중 유사문항과 반복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다른 하위요인들과 중복된 대학환경적응척도를 제외한 총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학업적응 17문항, 사회적응 9문항, 개인-정서적응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응은 대학의 다양한 교육적인 요구들, 학업에 대한 동기화, 학업적 노력에 대한 만족 등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 대한 적응을, 사회적응으로 대학 내의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대한 적응을, 개인-정서적응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화 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의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G지역에 위치한 4년제 3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주요변수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설문문항들을 구조방정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54]에서 제시한 문항묶음(item parceling)방법을 사용하여 각 하위문항별 평균평점을 산출하고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을 위해 AMOS프로그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에 의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특성

조사대상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변인	항목	N	%
성별	남	112	37.7
	여	185	62.3
학년	1학년	47	15.7
	2학년	115	38.3
	3학년	107	35.7
	4학년	31	10.3
전공	공학계열	43	14.3
	보건계열	35	11.7
	사범계열	30	10.0
	사회계열	59	19.7
	상경계열	77	25.7
	인문계열	56	18.7

※ 전체 N=300, 빈도의 차이는 결측값에 의한 것임.

2. 측정모형 검증

표집된 자료의 결측치는 성질에 따라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열평균 방법을 적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구조방정식의 정상분포조건인 왜도의 절대값 3미만, 첨도의 절대값 10미만[55]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설정한 측정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측정변인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1	1.00	5.00	2.21	.79	.43	.01
	취업스트레스2	1.00	5.00	2.37	.83	.22	-.27
	취업스트레스3	1.00	4.67	2.36	.83	.13	-.44
	취업스트레스4	1.00	4.67	2.22	.77	.24	-.23
	취업스트레스5	1.00	5.00	2.12	.84	.57	.17
가족지지	가족지지1	1.33	5.00	3.83	.76	-.38	-.14
	가족지지2	1.00	5.00	3.69	.81	-.23	-.23
	가족지지3	1.00	5.00	3.88	.87	-.40	-.4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1	1.63	5.00	3.39	.57	.25	.18
	자기효능감2	2.36	4.55	3.28	.32	.13	.53
	자기효능감3	1.20	4.80	3.44	.57	-.13	.05
대학생활적응	학교적응1	2.00	4.47	3.07	.38	.22	.73
	학교적응2	1.56	4.22	3.14	.42	-.26	.27
	학교적응3	1.36	4.71	3.01	.50	.23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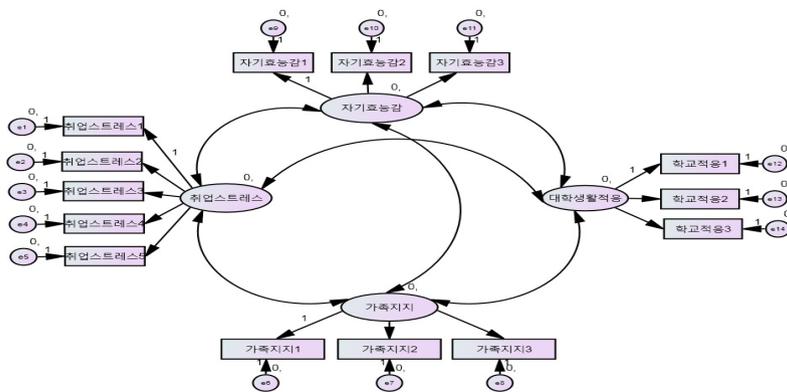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CMIN	DF	P	CMIN/DF	TLI	CFI	SRMR	RMSEA(.056)	
							LO	HI
138.458	71	.000	1.950	.969	.976	.0399	.042	.070

[그림 2]에서 제시한 가설적으로 구성한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검증결과 GFI, TLI, CFI는 .90이상,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5~.1 사이이면 적합[56]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 4]에서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와 더불어 모든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표준요인 적재값이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한 결과,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가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SRMR은 RMR을 표준화시킨 지표로 모형의 절대적합지수가 .08보다 작으면 적합한 모형[57]이다. 분석결과, TLI .969, CFI .976, RMSEA .056(Lo .042, Hi .070), SRMR .0399로 나타나 [56][57]연구에서 제시한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구성요인	측정변수	표준적재치	표준오차	분산추출지수	개념신뢰성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1	0.829	0.199	0.808	0.954
	취업스트레스2	0.908	0.121		
	취업스트레스3	0.908	0.120		
	취업스트레스4	0.875	0.139		
	취업스트레스5	0.761	0.298		
가족지지	가족지지1	0.834	0.177	0.825	0.934
	가족지지2	0.932	0.088		
	가족지지3	0.846	0.219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1	0.927	0.047	0.907	0.967
	자기효능감2	0.695	0.053		
	자기효능감3	0.821	0.106		
대학생활적응	학교적응1	0.708	0.132	0.822	0.931
	학교적응2	0.516	0.096		
	학교적응3	0.786	0.073		

표 5. 요인간 분산추출지수와 상관관계

	취업스트레스	가족지지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취업스트레스	0.808			
가족지지	-.355***	0.825		
자기효능감	-.601***	.440***	0.907	
대학생활적응	-.623***	.390***	.764***	0.822

*p<.05, **p<.01, ***p<.001 ※ 대각선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임.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CMIN	DF	P	CMIN/DF	TLI	CFI	SRMR	RMSEA(.056)	
							LO	HI
138.458	71	.000	1.950	.969	.976	.0399	.042	.070

적합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와 같이 모든 요인 간 상관관계의 크기가 -.355~.764로 나타나 요인 중 가장 작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을 갖는 취업스트레스 보다 작게 나타나 모든 요인은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은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TLI=.969, CFI=.976, RMSEA =.056(Lo .042, Hi .070), SRMR=.0399로 나타나 TLI, CFI가 .90이상, RMSEA .10이하, SRMR이 .08이하로 나타나 [56][57]연구에서 제시한 적합도 기준에 부합되어 적합도 지수에서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직접효과 추정치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취업스트레스는 가족지지(CR=-5.752, p<.001)와 자기효능감(CR=-8.733, p<.001)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은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CR=-3.561, p<.001)가 나타나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우 정적인 영향(CR=.463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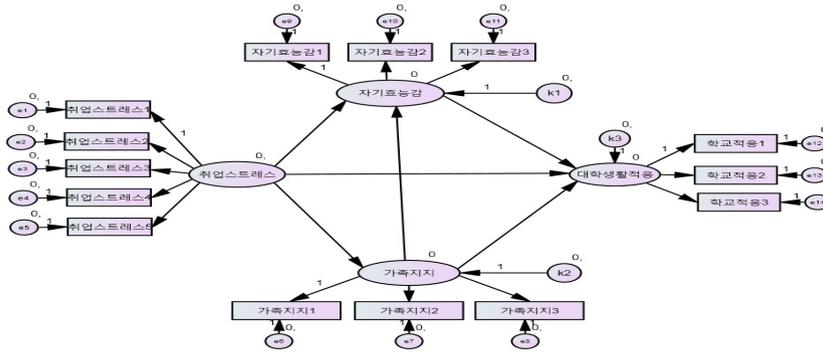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

표 7. 직접효과 추정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비표준화 Estimate	표준화 Estimate	C.R.	P
취업스트레스 → 가족지지	-.342	-.355	-5.752	***
취업스트레스 → 자기효능감	-.411	-.509	-8.733	***
취업스트레스 → 대학생활적응	-.103	-.251	-3.561	***
가족지지 → 자기효능감	.218	.260	4.636	***
자기효능감 → 대학생활적응	.302	.596	7.116	***
가족지지 → 대학생활적응	.017	.039	.652	.515

***p<.001

표 8.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취업스트레스 → 가족지지	-.355	***	-.355	***	.000
취업스트레스 → 자기효능감	-.601	***	-.509	***	-.092
취업스트레스 → 대학생활적응	-.623	***	-.251	**	-.372
가족지지 → 자기효능감	.260	***	.260	***	.000
자기효능감 → 대학생활적응	.596	***	.596	***	.000
가족지지 → 대학생활적응	.194	**	.039		.155

***p<.001

미치는 직접효과(CR=7.116, p<.001)는 정적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지지의 경우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직접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8], 취업스트레스는 가족지지를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간접적 영향(표준화계수=-.09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가족지지를 매개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가족지지를 매개한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효과(표준화계수=-.601)는 부적인 영향이 나타나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자기효능감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표준화계수 =-.372, p<.001)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효과 역시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족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직접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적인 간접효과(표준화계수=.155, $p<.001$)가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대학생활적응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그리고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효과는 없지만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으로 긍정적 영향 요인임이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대학생활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 ‘가설2’, ‘가설3’은 채택되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가족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7’은 채택되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효과 역시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의 부정적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 및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학업적 적응과 일반적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58]의 연구와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된 [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직접효과

가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게 나타나 ‘가설4’는 채택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 및 신념으로[13]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긍정적 자원은 보호와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행위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가족지지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59]으로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었으나,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가설8’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5][8][60][61]의 결과와 일치한다. [2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대학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족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가설6’은 기각되었으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정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대학생활적응은 높게 나타나 ‘가설9’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선행연구결과[9][17][61][63]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을 연구한 [64]에 의하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자녀의 관계는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문제행동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가족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족지지가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킴으로써 능동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활적응의 향상을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의 완화, 가족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노력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사고와 리더십 향상을 통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멘티·멘토활동 프로그램 등을 대학생활 동안 상담과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지지는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의 형성과 지지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집단과 성원모두의 발전을 촉진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하므로, 가족의 지지는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기술훈련, 정서친밀성 강화훈련 등 적응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지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초기부터 전공에 대한 정보 및 지속적인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시켜 구직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장기적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시간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표본이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기에 면담 등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황매향, 박혜영,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제8권, 제2호, pp.157-176, 2005.
- [2] 김영상,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 통계청, 2013 청소년 통계, 2013.
- [4] 통계청,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3.
- [5] 이윤조,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6] 홍계옥, 강혜원, “대학생의 부모애착, 학업적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제13권, pp.133-144, 2010.
- [7] 이숙정,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25권, 제2호, pp.235-253, 2011.
- [8] 김경옥, 조윤희,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197-218, 2011.
- [9] 조발그니, 류정희, “학습기술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학업적 유능성, 가족의 지지) 자기가치수반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8호, pp.1-21, 2012.
- [10] 김종운, 김지현,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48-259, 2013.
- [11]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5-27, 2013.
- [12] 김종운, 이명희, “전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506-516, 2014.
- [13] A. Bandura,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Vol.28, No.2, pp.117-148, 1993.
- [14] A. Bandura,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5, No.5, pp.729-735, 1989.
- [15]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Vol.16, No.3, pp.282-298, 1980.
- [16] 박현미,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7] 김정현,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3권, 제4호, pp.161-183, 2008.
- [18] 박현미, 장석진,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21권, 제1호, pp.1-21, 2013.
- [19] E. Schmitt-Rodermund and F. W. Vondracek, “Breadth of interests, exploration,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5, pp.298-317, 1999.
- [20] 이은우,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정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1] 이숙정, 유지현,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pp.589-607, 2008.
- [22] 이지선,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3]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분석 :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5권, 제1호, pp.57-76, 1999.
- [24] 김의철, 박영신,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교육심리연구*, 제13권, 제1호, pp.99-142, 1999.
- [25] M. London, “Overcoming ccaareer barriers :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4, No.1, pp.25-38, 1999.
- [26] 박영신, 김의철, 광금주,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3권, 제1호, pp.79-101, 1998.
- [27] D. W. Chan, *Adjustment problems,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Gifted Students in Hong Kong*, Report Review, Vol.28, No.4, pp.203-209, 2006.
- [28] 이강선,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적응*,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29] 류경희,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pp.147-166, 2003.
- [30] S. Cohen and T. A. 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No.2, pp.310-357, 1985.
- [31]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314, 1976.
- [32] A. Peterson, Adolescents and stress. In L. Goldberg & S. Breznitz(Eds), *Handbook of stress-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515-528), N.Y : Macmilan, Inc, 1982.
- [33] M. Rutter, “Psychosocial f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pp.316-331, 1987.
- [34] C. M. Aldwin,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 N.Y. : Guilford Press, 1994.
- [35] R. L. Payne and J. G. Jones, Measurement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ocial support. In S. V. Kasl & C. L. Cooper(Eds.), *Research methods in stress and health psychology*(pp.167-205), N.Y :John Wiley & Sons, 1995.
- [36] J. K. Kiecolt-Glaser and B. Greenberg, “So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aftereffect of stress in female psychiatric im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93, No.2, pp.192-199, 1984.

- [37]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83.
- [38] Furman and Buhrmest,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1, pp.1016-1024, 1985.
- [39] 김은경,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40] W. R. Avison and D. D. McAlpine,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3, pp.77-96, 1992.
- [41] C. J. Holahan, D. P. Valentiner, and R. H. Moos, "Parent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 An integrative model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4, pp.633-648, 1995.
- [42] Bandura,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997.
- [43] 김수리,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교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44] 장혜경,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5] 황성원,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46] E. F. Dobow and D. G. Ulman,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8, No.1, pp.52-64, 1989.
- [47] S. Harter,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1985.
- [48] 김명숙,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49] 김세원,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50] 김아영, "차정은,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51-64, 1996.
- [51] 김아영, "학구적 실태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1권, 제2호, pp.1-19, 1997.
- [52]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f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179-189, 1984.
- [53] 김효원,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력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54] 문수백, *구조방정식모형의 이해*, 학지사, 2009.
- [55] R. B. Kline, *Principle and practi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ition*, NY : Guilford press, 2010.
- [56]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접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pp.161-177, 2000.
- [57] L. Hu and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rling*, Vol.6, No.1, pp.1-55, 1999.
- [58] 김성경,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 pp.215-237, 2003.
- [59] R. A. Young, L. Valach, J. Dillabough, C. Dover, and G. Matthes, "Career research from an action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3, No.2, pp.185-196, 1994.
- [60] 최은실,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1] 김용래, 유효현, “자기효능감과 수업동기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탐색”, 인문과학, 제10권, pp.93-115, 2002.

[62] 문은식, 김충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의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제16권, 제2호, pp.219-241, 2002.

[63] 최지은, 신용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2호, pp.199-210, 2003.

[64] D. D. Dubois, R. D. Felner, H. Meares, and M. Krier,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3, No.3, pp.511-522, 1994.

[65] 박경일,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6] 이은희,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9권, 제1호, pp.25-48, 2004.

[67] 홍지연,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8] 표은경, *여대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9] 정의석, 노안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제33권, pp.85-101, 2001.

[70] 강미영, *대학생의 취업준비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탐색행동, 스펙5종별 준비정도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1] 이용길, 강경희,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공학교육연구, 제4권, 제2호, pp.60-67, 2011.

[72]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73] 정운정, *대학생의 가족지지, 진로정체감, 진로신념과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4] 류진숙,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5] 임통일, “가족지지가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간 구조분석”, 재활복지, 제17권, 제3호, pp.55-81, 2013.

저 자 소 개

고 경 필(Gyeongpil Ko)

정희원



- 1997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가정학박사
- 1997년 9월 ~ 현재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가족환경, 사회과학 콘텐츠 개발

심 미 영(Miyoung Sim)

정희원



- 1999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가정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사회과학 콘텐츠 개발